

현대 남성수트(SUIT)의 변천과 미학적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채금석

目 次	
I. 서론	① 신고전주의적 관능성
II. 수트의 변천과정	② 고전주의적 단순성과 소박성, 강인성
① 12~16세기	③ 색상의 자연성
② 17~18세기	IV. 결 론
③ 19세기	참고문헌
III. 수트의 미학적 특성	ABSTRACT

I. 서론

수트(Suit)의 의미는 사전¹⁾에 의하면 남자의 상의(재킷 또는 코트), 조끼(베스트), 바지의 세 가지가 갖추어진 한벌의 洋服으로서, 이를 한 종류의 소재로 만들어진 의상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렇게 한 종류의 소재로 된 한벌의 신사복을 우리는 수트라고 말한다.

남성수트는 패션에 관련된 어떤 명성이나 반향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Fashion'과 연관되지 않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남성수트가 결코 패션과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1800년대 이후 모든 남성수트는 형태와 소재, 영역에 있어 다양하게 변화해 왔는데, 상의는 박스형의 짧은 모습, 꼭 맞는 긴 모습 등으로 각기 다른 단추와 주름이 진 형태를 하였으며, 바지는 넓고 짧거나, 뻗뻗하고 좁기도 했다. 또한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한 조끼는 서서히 변화하여 수트의

다른 부분과의 지속적인 변환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수트의 전체적인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수트는 본래 빅토리아(Victorian)시대 상류계층의 남성들이 라운지 룸(Lounge room)에서 담소하는 동안 편하게 입었던 옷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으며, 그 때문에 라운지 수트, 혹은 sack(Sack)수트로 불리기도 하였다. 빅토리아시대의 상류계급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매너와 관습이 있었는데, 이를테면 저녁식사 때에는 반드시 이브닝 코트(evening coat)로 갈아입고 식사를 한다든가, 여성들과 함께하는 다이닝 룸에서는 독한 술이나 담배도 허용되지 않았고, 저속한 이야기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저녁식사 이후에 남자들끼리 편안히 담소할 수 있었던 라운지 룸에서는 좀 더 편안한 옷차림으로 갈아입는 관습이 생겼으며, 이때 입었던 옷이 바로 수트의 원형이라 한다. 라운지 수트가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보급

1) 영어사전 : (복장의)한 벌, 일습, (남자옷의)셋 가춤(상의, 조끼, 바지)

복식사전 : 여성복의 경우 재킷과 스커트, 재킷과 판탈롱의 한 벌이 똑같은 천으로 된 것

된 계기는, 1870년 이후 당시의 최신 패션스타일인 라운지수트를 입은 영국수상 벤자민 디즈넬리(Benjamin Dysnelly)와 프록(Frock)코트에 통이 좁은 판탈롱을 입은 찰스 디킨스(Charles Dickyns)의 대조적인 모습이 일러스트로 신문에 게재된 이후 부터라는 일화가 있다. 또한 19세기 이후로 수트는 상의와 조끼, 바지를 각각 다른 소재로 만드는 습관이 생겼으며, 이후 수트는 경제적 성장을 이룩한 미국 기성복업계의 발전과 영화산업의 발전으로 전세계적으로 보급되어 세계 남성들의 가장 보편화되고 일반적인 衣服이 되어 왔다.

이러한 수트의 전체적인 형태가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힘은 바로 어디서 비롯되어진 것일까? 이것이 빅토리아 이전 시대의 패션 그리고 현재의 패션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에 대하여 연구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의복의 변화는 곧 사회현상의 변화로서 정치, 사회적인 변화가 의복에 반영되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나, 근 200년 동안 남성수트의 형태는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물론 세부적인 미세한 변화는 있었으나) 그 지속성의 힘의 근원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흥미롭다. 지속적으로 내적변화를 진행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동일성을 유지해 온 남성수트는 새로운 장점과 가치를 획득하면서, 시각적인 강조점을 변화시키고 독점적이면서 자체적으로 패션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음을 증명해 왔다.

지금까지 여성복에 관련하여 그 스타일의 변화와 미적 의미를 고찰한 연구는 많았으나 남성복에 관련한 연구는 그 변천사는 물론 스타일과 연관한 미적 의미를 살펴본 연구가 전무하다. 따라서 남성복에는 어떠한 미적 특성이 내재되었기에 오랜 세월 동안 그 형태가 변함없이 유지되어 올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는 오랜 세월 동안 남성수트의 재봉구조와 스타일상의 힘과 지속성을 유지해 주는 의미를 미학적 측면에서 그 근원을 살펴보기 위해 현대 남성수트의 발생배경과 그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그 형태를 지속시키는

미학적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연구 목적을 두며, 연구방법은 문헌과 실물사진을 중심으로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남성수트의 공식적인 정장은 물론, 형태면에서 공유되는 점이 많은 여가복과 같은 비공식적인 정장 까지도 포함한다.

II. 수트의 변천과정

현대 패션에 있어, 섹슈얼리티는 표현의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면서 실리적이고 퇴행적인 양면성을 내포하는 모든 창조활동의 기저에 깔려있는 근원이 되었다. 패션이 시작된 이후 성적 특징에 의해 남성이나 여성 일체를 강조한 형태가 창조되었으며 삶의 모든 다른 영역에 맞도록 조정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1200년에서 1400년사이 서구 패션의 개념이 완전히 뿌리익었을 어느 시점에서 현실화 되었다.

약 1100년이 되기까지의 초기 중세시대의 조각들에 나타난 주름진 의상들의 형태는 남·여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14세기에 와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옷을 입기 시작하고 있다. 유럽 패션의 혁신적인 진보의 첫 단계는 12세기 후반에 개발된 갑옷과 연관이 있으며, 남성패션은 이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모방해 왔다. 중세 갑옷의 다이내믹한 외형적 정교함은 화려함과 초자연적인 힘의 추상적인 이미지를 지닌 채 남성 신체의 정교한 아름다움을 매우 독창적인 현대적인 방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때부터 남성복은 고대로부터 지속되어 온 몸에 여유있게 드레이프지는 험형한 특성을 없애고 인체의 흥미로운 윤곽선에 관심을 가지고, 의복구조에서 팔과 다리의 전체적인 형태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12세기 후반 부터 13세기 사이에 남성복과 여성복은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여, 남성복의 경우 남성 누드의 형태를 따라 인체에 완전히 꼭 맞는 형태로 발전되었으며, 이는 최초로 고전양식이 부활되었던 이태리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남성 누드를 토대로한 남성패션의 시작을 의미하며, 이러한 모습은 활동적인 힘의 모습을 나타내는 남성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① 12세기~16세기

현대 남성수트는 패션에 의해서 발전되어 온 복식의 두드러진 표본이 되어왔다. 그것은 일련의 기준을 취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그 기준이란 당대의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유형의 남성성(masculinity)을 명백히 의미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준들이 현대적 방식을 통해 잘 조화된 추상적 시각 구조로 통합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형식의 구성은 근본적으로 性的인 요소를 부여하고 變化하는 社會的인 의미를 따라가는 즉, 포용적이면서도 배타적인, 진부하고 싫증나는 것이면서도 맵시있는 그 미묘한 것으로 혹은 경박스럽고 현혹적이면서도 공정하고 고상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는 충분히 여러 의미를 지닌 이 모드를 내포한 것이다.

11세기경 남성들은 몸에 꼭 맞는 튜닉형태의 옷을 입었는데, 이는 양 옆에서 끈으로 묶었고 길이는 무릎에서 바닥까지의 길이로 '블리아트(bliauts)'라 알려진 것이다. 그리고 이와 형태가 비슷한 저의 귀족들만 착용했던 당시의 로브(robe)에서 쇠비늘 갑옷의 시초를 엿볼 수 있다.²⁾

유럽 남성패션의 혁신적인 진보의 첫단계는 12세기 후반에 개발된 갑옷과 연관이 있는데, 이것을 후기 남성 패션에서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모방하였다.³⁾

그리고 비록 그 이후의 남성패션이 인체를 과장시키거나 압축시키고, 과다한 장식 심지어 온 몸을 감싸는 형식을 취해 왔지만, 그 디자인의 목적은 남성 인체의 형상 자체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었다.

중세 갑옷의 다이내믹(dynamic)한 외형적 정교함은 복합적인 화려함과 초자연적인 힘의 추상적인 이미지를 지닌 채 현대적 방식으로, 완벽한 남성인체의 정교한 아름다움을 매우 독창적으로 고양시키게끔 고안되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매우 실용적인 면 뿐 아니라 미학적인 면에서도 대단한 진보였는데, 축 쳐진 쇠사슬로 만들어진 초기 중세의 갑옷은 무겁기만 하고 착용하기 고통스러웠던 것에 비하면 새롭게 개발된 갑옷은 전통적인 갑옷의 스타일과는 전혀 달랐다. 중세 초기의 특징을 지닌 사슬 갑옷은 14~15세기 동안 크고 단단한 판으로 만들어진 갑옷으로 차차 바뀌어서 14세기 후반에는 몸통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단순한 갑옷으로 발전하였는데, 이것은 금속판을 연결시켜 만든 판코트(coat of plates)라 불리는 근육을 모방한 듯한 금속조각으로 텐몸을 덮었으며 다른 부위는 벗겨 놓은 채로 놔둔 채 몸통의 형태와 팔과 다리 부분의 이상적인 누드형식을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갑옷은 점차 단순한 쇠비늘 갑옷에서 귀족이나 부자들이 착용하는 보다 기품있는 예술적인 갑옷으로 발전했으며, 이는 이후 튜닉이나 로브와 같은 몸에 꼭 맞는 형태의 겹옷으로 변모되었다. 의복의 스타일이 변하는 것처럼 의복('명칭도 바뀌었는데, 로브와 형태가 비슷한 튜닉은 더블릿(doublet : 14~17C 사이에 남성들만 착용)이 되었고, 이것이 남성자켓(jacket)의 시초가 되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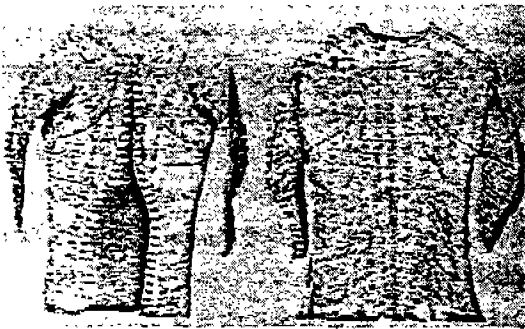
갑옷의 혁신은 서양 복식에 있어 최초로 진정한 현대성을 나타내어 주는데, 이는 남성 인체의 각 부분들을 새로이 구성하여 이를 다시 새로운 형태—즉 나체의 인간 골격을 다른 매체 속에서 3차원적인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재결합시키는 방법을 보여준다. 더구나 갑옷은 리넨으로 만들어 진 속옷을 필요로 하였는데, 이는 모든 남성들의 인체

2) Maggie Pexton Murray, Changing Styles in Fashion, Farchild, 1990.

3) 의복과 성, Ann Hollander, 채금석 역, 경춘사, 1996. p.64.

4) Maggie Pexton Murray, OP · Cit p.51

의 윤곽선을 나타내 주는 꼭 밀착되는 패드를 맨 수트(suit)로서, 몸통의 형태를 따라 만들어진 금속 케이스로부터 인체를 보호하였다. 그 당시 전투요원인 하급군인들은 인체보호를 위해 갑옷에 두꺼운 천으로 만든 심을 넣었고 무장한 기사도 마찬가지로 심을 넣어 입었는데 그 목적은 태양으로부터 가열된 갑옷의 금속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병사(兵士)들이 갑옷 속에 입던 누빈옷 지뽕(gipon)(그림 1)으로, 이후 상체의 형태에 꼭 맞는 上衣인 튜닉과 로브로 변모되었고, 영국에서는 이를 더블릿이라 하고, 프랑스에서는 부르쁘앵(pourpoint)이라고 불렀다. 성기를 가리려는 의미로 만든 짧은 더블릿은 가까스로 그 부위를 가림으로써 이득을 더 끌게 되어 오히려 그 부분을 노출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인체에 완전히 꼭 맞게 밀착되는 더블릿은 적절히 허리 주변까지 부드러운 레이스가 달렸고, 형식적인 코트는 매우 짧고 단정하게 패드를 맨 형태였다. 소매는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모양을 내고 덧대어졌다.



(그림 1) 중세의 지뽕(Gipon)

14세기 이후 남성복은 인체의 흥미로운 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의복 구조에서 팔과 다리의 전체적인 형태를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4세기에는 훨씬 정교한 스타일이 확산되었는데 이시기의 남성용 더블릿(doublet : 몸에 꼭 끼는 상의)은 아주 짧고 타이트했다.⁵⁾ 그림<그림 2>에

5) Elizabeth Wilson, [Adorned in Dreams], Chap 2.

서의 의복은 갑옷의 견고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인체의 각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강조되어 있다. 14~15세기에 남성복이 신체의 윤곽선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남성들은 그들의 완전한 다리모습이 돋보이도록 과시하였는데, 따라서 갈라진 반바지는 꼭 조여지게 재단되어지고 속옷을 가릴 수 있도록 끌어올려졌다. 각각의 다리는 훨씬 길게 보였으며 바지의 불룩한 부분이 코드피스(codpiece)로 고안되어져 덧붙여졌다.



(그림 2) Francois Clouet, Le Duc d'Alenson, French, 1575.

남성복의 하의의 기본을 이루는 브리치(breeches)나 호스(hose)는 14세기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며, 특히 호스는 천으로 만든 스타킹(stocking)으로, 북부지방의 부족들에게서 전해지기 전까지는 로마에는 알려지지 않았고 이러한 기원 때문에 경멸시 되었지만 이는 따뜻했기 때문에 곧 대중화되었다. 귀족들은 브리치를 꼭 맞게 입었고, 서민들은 헐렁하게 착용하였다. 사실 초기 기독교시대(8~9C)에는 남녀 모두 간단한 속옷을 입었는데 남성의 경우 일종의 마름모꼴 형태의 속옷을 입고, 이 위에 브리치(breeches)라는 재단과 재봉을 한 바지형태의 꼭끼는 의복을 입었다. 이 브리치는 양

다리위로 끌어 당겨 허리에서 고정되는 옷으로, 이는 현재의 타이츠와 비슷한 형태였다. 이 브리치 위로 지금의 레깅스(leggings)와 비슷한 호스를 착용하였다. 이 호스는 계급에 따라 길이와 장식의 차이가 모두 달랐으므로, 착용상태 만으로 착용자의 지위를 쉽게 알 수 있었다. 이태리에서 최초로 부활된 고전양식의 이러한 모방은 분명히 古代 남성 누드에 대한 새로운 유행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후 유럽 남성패션에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친 것은 갑옷을 착용한 남성들의 놀라운 최고의 아름다움이었다. 귀족들이 패셔너블(fashionable)한 의상에 흥미를 가지게 된 것은 14세기 버거디언(Burgundian) 궁전에서 처음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중세시대에는 옷값이 무척 비쌌기 때문에 옷은 바로 값을 상징했으며 이 시기부터 사람들은 옷을 통해 자신들의 개성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14세기 이후 17세기에 이르기까지 남성복은 인체의 모양을 따라 추상적인 형태를 가진 갑옷을 모방하여 만들어졌고 그 최고의 멋은 추상적으로 짧은 칼라(collar)에 내재된 일종의 군복을 상징하는 목부위의 풀을 먹인 옷깃에서 정점에 달하였다. 르네상스가 꽃피던 15세기 초에 더블릿은 다용도의 남성복이 되었다. 16세기에 성직자들, 내과, 외과의사들은 계속 입어왔던 중세의 긴 로브를 벗어 버리고 짧은 코트와 짧은 상의, 긴양말로 산뜻하게 차려 입었다. 남성의 새로운 갑옷같은 수트는 패셔너블한 변화에 활달하고, 현대적인 경향을 정립시켰으며, 성별간의 새로운 시각적 대화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모범적인 형태를 정립하였다. 따라서 타이트하고 무게 있으면서 정교한 남성복의 형태는 머리, 목, 몸통, 팔, 다리, 때로는 생식기 등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항상 인체의 각부위를 정확하게 나타내었다.

② 17~18세기

17세기 이전에는 한벌로 된 일시벌을 재단하거나 모든 다양한 종류의 남성복이 조화를 이루도록 차려 입는 관습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현대정장의 시초, 즉 장식적인 셔츠와 함께 입는 베스트, 재킷, 브리치와 같은 의복들을 나타낸다. 정장이란 단어가 인기를 끌게된 것도 이 시대였으며, 당시의 정장은 실크, 공단, 무늬비단으로 만들어진 아주 화려하고 비싼 것으로 남성패션에 있어서 화려함의 극치였다.⁶⁾ 전 유럽이 전쟁에 가담하였던 17세기에는 군인다운 우직성과 사제의 정숙성이 모든 지역에서 숭앙됨으로써 남성들의 의복은 검소하고 절제된 경향으로 흐르게 되었다. 17세기 동안 프로테스탄티즘의 세력확장과 더불어 사제복은 시각적으로 강렬한 위풍凛凛은 존재로 부각되게 되었으며, 또한 비귀족적인 부르조아계통(특히 북서 유럽과 공화정치하의 영국)의 사람들은 강렬한 힘을 상징해 주는 전쟁 군인들의 복장을 동경하였다. 따라서 사제복의 과묵함과 전쟁군인들의 단순하고 거친 군복의 강한면의 대립적인 요소들은 창조적으로 조화되어 남성복에 지속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해 왔다. 17세기 후반에 시작된 구체적인 현대 정장의 형태는 느슨하게 맞는 단추가 채워진 코트가 가장 바람직한 남성 上衣가 되었다. 근대 정장-코트의 초기형태는 약 3세기 동안 남성의 우아함을 나타낸 패드를 댄 더블릿과 가운으로 대체되었으며, 그 코트 안쪽에 바지가 아닌 스타킹과 함께 승마용 바지(breeches)를 착용하였다. 그러나 브리치는 더블릿에 걸들여서 착용되기를 멈추고 패드를 대지 않은 헐렁하고 부드러운 형태로 변모되었으며, 단추가 달린 조끼(waistcoat)가 코트 안에 입혀짐으로써 결국 쓰리피스형의 남성정장이 탄생된 것이다.⁷⁾

부드러운 셔츠의 칼라와 커프스는 뺏뺏한 주름질을 대신하였고 처음으로 넥타이(cravat)가 목 주변에 둘러졌다. 이리하여 코트에 조끼, 바지, 셔

6) Maggie Pexton Murray, OP · Cit p.69.

7) Ann Hollander, OP · Cit p.93.

츠, 넥타이를 갖춘 현대 정장의 구조가 갖 시작되었다. (그림 3)



(그림 3) Jacques Louis David, 1795.

이러한 초기의 남성수트의 발전상은 상류계층의 남성들이 오랫동안 입어 온 갑옷같은 더블릿의 세심하게 묶어매거나 집어넣는 스타일과는 다른 편하게 차려 입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욕구에 일치되는 것이었다.

1660년 이후, 길고 느슨하게 인체에 맞는 남성의 새로운 코트는 어두운 색상의 둔탁한 직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모든 수트-코트에는 뚜껑 달린 커다란 호주머니와 큰 커프스가 달렸고, 호주머니, 커프스, 조끼 앞면, 코트의 앞면에는 많은 단추를 촘촘하게 열을 지어 달았다. 남성복 장식에는 일렬로 된 끈(braid)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심지어 궁정용 드레스에까지 사용되었고 모자와 겹대(劍帶)는 아주 컸으며 부츠도 매우 컸는데, 넓은 윗면이 보이도록 안쪽에는 안감을 대고 걸면은 조각을 하였다.

17세기 후반과 18세기 대부분의 기간동안 모든 남성의 수트-코트는 의례 커프스와 포켓 뚜껑이 달리고 어깨에 아무런 장식이 없고 칼라도 달지

않았다. 칼라가 달린 유일한 신사코트는 영국인들이 시골에서 사적인 여가를 보낼 때 입었던 모직으로 만든 비공식적인 “프록(frock)”이었다. 프랑스인들은 영국의 프록코트를 일명 승마코트(Riding Coat)라고 불렀으며, 프랑스혁명 직전까지 이 프록코트는 프랑스귀족, 부유한 상인, 무역상 그리고 심지어 하인들에게 까지도 가장 명예로운 의상으로 간주되었다. 사실 1740년 초부터 소수의 유럽귀족들과 부유한 상인들은 그 전까지 유럽에서 인기가 있었던 파리패션을 버리고 영국귀족계급의 복장은 물론 습성까지도 채택하기 시작했다. 또한 1750년대 이후로 시작된 프랑스의 귀족, 재정이, 법관 및 작가들의 영국해협으로의 여행은 영국식 의복을 보급시키는데 일조했다. 1760년대 프랑스에서 널리 알려진 앵글로매니아(Anglomania)란 용어는 이후 남성패션의 연구적인 특징이 되었으며,⁸⁾ 따라서 비즈니스(Business)수트와 같은 현대 남성정장 형태의 출현은 바로 영국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럽의 상류계층이 간편한 영국의복을 모방하기 시작했을때 즈음 남성복은 궁전이나 살롱에서 입혀지는 정장과, 평복으로 알려진 일반평상복으로 그 특성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 특성은 프랑스식의 수직칼라와 영국식의 접어 젖힌 칼라의 두가지 모델로 집약되는데, 전자는 칼라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플레이어가 진, 몸에 꼭 맞는 코트로 되어 있으며 긴 조끼와 무릎길이의 브리치, 실크스타킹, 버클이 달린 붉은색 힐의 신발, 실크나 벨벳에 수를 놓은 궁정용 의복이었다(그림 4). 후자의 평상복은 전원생활용으로 적절하게 고려된 것이었지만, 이는 도시에서도 폭넓게 수용되었다(그림 5). 또한 이 시기의 마부들은 케이프 칼라를 단 코트를 입었는데, 이는 비, 눈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했다.

8) Farid Choune, A History of Men's Fashion, Flammarion : Paris, 1993, p.9.



(그림 4) Jean de St-Jean, Habit d'eepee, 프랑스 패션 인 쇄물, 1685.



(그림 5) George Stubbs, 존 경이 그의 개와 함께 사냥을 하고 있다, Lincolnshire, 1776.

1650년에서 1780년 까지 모든 미술에 나타난 남성들의 모습은 어깨가 매우 좁고 기운게 보였으며, 가슴은 약간 가라앉고, 심지어 매우 늘씬한 사람도 열려진 코트 앞 부분과 브리치의 낮은 허리 위 사이에서 복부가 눈에 띄게 튀어나온 것처럼 보인다. 중앙부의 이러한 둥과 같이 생긴 형태는 아래로 열을 지어 달려있는 조끼의 단추에 의해 강조되었다(그림 6). 때로 풀을 먹이거나 철사를 대어 형태를 만들었던 코트 스킷트는 허프 높이에

서 바깥 쪽으로 팽창한 형태를 취했는데, 이러한 의복의 전체적인 효과는 남성의 허프, 허벅지를 강조하고, 가슴과 어깨를 움추려 보이게 하면서 상체를 길게 보이게 하고, 다리를 짧게 보이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남성복의 구조는 당시에는 너무 남성적인 것이어서, 그 형태 자체가 나름의 축적된 권위를 지닌 우아한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17세기 후반 전까지 남·녀 의상은 꽤 유사하였으나, 이의 근본적인 분기점의 시작은 18세기에 주목된다. 이 시기의 의복은 18세기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19세기에 정점에 달하여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로부터 오랫동안 남성수트의 발전이 시작되었다. 18, 9세기를 통해 남성들이 개인적인 용모에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남성복은 계속해서 기능적이든 독창적이든 간에 모든 진지한 남성의 일에 부여되는 존경심에 비례하여 존중을 받게 되었다.



(그림 6) Jacques-Laurent Agasse, 자화상, 1790년경.

1770년대에 남성복 바지의 다리 양쪽은 너무 날렵하게 부피가 축소되어져서 우아하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송이와 같은 모양으로 보였으며, 칼라가 달린 느슨하고 편안한 모직 프록(frock)은 커다란 커프스와 호주머니 덮개가 사라져야만 하는 등 신중한 수정이 요구되었다. 다음 20여년 동안 풍성한 코트-스커트의 부피는 과감하게 줄어들었고 두께와 뽀뽀함이 다 사라졌으며, 뽀뽀함은

대신 가슴과 어깨로 확장되어 위로 이동되었다. 소매자락에는 삼각형의 작은 퍼프를 대었다. 이전에는 둥근 복부위로 펼쳐 내려져 있던 조끼는 짧아져서 헴라인이 짧아졌으며 균형잡힌 허리선을 가로질러 재단되었다. 조끼는 코트처럼 종종 더블 보턴(double button)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과거의 돛형의 두근 복부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그림 7). 이전의 험명한 칼라는 넓어진 어깨와 균형을 맞추고 영웅적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목부위를 강화시켰으며, 분칠한 가발을 없애고 고전주의 스타일로 짧게 자른 머리를 돌보이게 하기 위해 목 위로 올라왔다.



(그림 7) Wright of Derby, Brooke Boothby, 1781.

현재 보편화되어 있는 남성정장은 원래는 신고전주의적 양식이었다. 이는 1780년에서 1820년 사이에 만들어지고 완성되었는데, 당시 고전주의적 디자인의 가장 단순한 시각적 모티브들은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와 로마의 기술의 명징성과 힘을 암시하였다.⁹⁾ 1770년대~80년대의 패션 팜플렛에 나타난 남성정장은 아직도 자수가 놓인 실크와 가발을 쓰고 레이스 처리된 셔츠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대폭 감소된 형태였다. 18세기 후반의 남성복은 바로크 풍의 풍부한 감정 표현으로부터 좀더 고도의 단순성과 보다 절제된 표현으로의 일반적인 취향을 따랐는데, 한결같이 인체가

꼭 조여지게 꼭 맞는 옷과 말끔한 형태를 취했다. 177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는 구식의 환상에 대한 돌발적 인기로 하여 신사계층 사이에서 “마카로니(Macaronis)”라는 유럽풍 스타일의 패션이 유행하였는데, 이 스타일도 거대한 가발, 작은 모자, 몸매 꼭 맞는 조끼, 큰 단추, 무릎 길이의 브리치와 매우 밝은 줄무늬의 스타킹 등을 특징으로 한다(그림 8). 17세기에서 18세기 동안의 궁정 귀족들을 중심으로 한 마카로니 패션은 루이 14세의 귀족주의의 강권에 의해 지속된 현상이었다. 그러나 18세기를 넘어서면서 귀족적 권위의 절정기에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부르조아(Bourgeoisie) 계층의 반(反)귀족주의적 패션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의 이미지는 궁정 엘리트들의 인지되어진 허용, 무책임성 그리고 귀족의 애국심 결여 등을 상징하는 마카로니 패션을 공격하였으며, 이들의 의상은 정교한 남성적 특징이 강화된 부패, 독재, 미덕, 남성다움, 애국심 등의 상징으로 환영되었다.¹⁰⁾



(그림 8) 영국의 마카로니패션, Carington Bowles, How d'ye like me?, 1772.

남성상이 강조된 패션은 영국상인과 부르조아 계층들이 중심을 이루었는데, 스틸(Steele)은 이에

9) Ann Hollander, OP · Cit p.12.
10) 채금석, [현대복식미학], p.300.

대하여 '시민사회의 발전에 따른 남성패션과 유럽에서의 귀족적 권위와 세력 사이에는 투쟁이 존재했다'고 주장한다.¹¹⁾

18세기 후반의 활기에 찬 남성적인 우아한 형태는 세련되지 못한 영국의 남성 귀족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18세기 말에 영국 남성복은 여성모드와 거리를 둔다는 관점과 남성의 우월감을 나타내주는 무게있는 화려함과 부풀린 형태의 구식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근대화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영국에서는 수수한 코트, 실용적인 부츠, 수수한 모자, 린넨이 풍부한 땅의 소유를 상징했을 뿐아니라 원시적인 제도와 개인의 허식적인 치례에 대하여 조소할 수 있는 지각있는 신사의 상징으로 변했다. 또한 패션은 18세기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냈고, 프랑스혁명을 발발시키는 데에도 일조하였다. 루이16세가 강행한 사치금지령은 각 계급이 착용할 수 있는 의복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였고 이는 군주와 평민들을 갈라 놓았던 거리감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파리에서의 최신의 남성적인 멋은 노동자의 험거운 바지와 누덕누덕한 누더기의 널찍한 목도리를 선호하는 단정치 못한 거리패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다(그림 9). 이들은 점차 개인적인 과시나 의례적인 궁정의 의식들을 경멸하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사제들의 근엄함이나 중간 상인계층의 성공한 외양과는 거리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유지하였다. 그들은 초기 청교도와 시골에 거주하는 귀족이나 신사계층에 의해 표출된 기품있는 수수함을 혼합한 형태를 취했다.

즉 세련되지 못한 시골 신사들의 얼룩지고 단정치 못한 수수한 리넨 셔츠와 넥타이(목도리)과 같은 거친 의복에 대한 예찬은 이같은 눈부신 백색으로 다시 세탁하고 가볍게 풀을 먹여서 목과 턱 주변을 조각가의 신중한 손놀림과 같은 정성으로 조심스럽게 둘러싸서 위풍당당한 효과를 창출해 내었다. 그리고 두껍고 흙이 많이 묻은 시골장화 역

시 광택을 내고 잘 맞도록 세련되게 손질되어 영국 도심지의 신사들이 애호하는 패션으로 변모되었다. 또한 도시 신사들의 복장에 기여한 혁명 노동계층의 쌍-필로트(sans-culotte)의 신고전주의적인 '자연적' 모드는 결과적으로 볼품없는 외형에서 다른 형태로 각색되어 새로운 남성복에서 구현된 기존의 강력한 시·상적 결합에 속물적 근성을 암시하는 영국적인 것과 혼합이 됨으로써 세련된 새로운 이상적인 남성복으로 재형성되었다. 당시 마치 거리의 마부와 같은 차림의 젊은 귀족들의 옷차림에 대해 패션해설가들은 'Neglige (평상복)', 'Indecent(외설적인 옷)', 'Plain(간소한 옷)'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일부 나이든 귀족들은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고 개탄하였다.



(그림 9) Louis Leopold Boilly, Flag Bearer during Civic Celebration : The Actor Chenard 'detail', 1792.

18世紀末, 영국에서 발생한 남성복의 놀라운 근대화는 여성모드와 완전한 거리감을 둔다는 관점과 남성의 우월감의 표시로서 역할을 하는 무게있는 화려함과 뽀뽀하게 부풀린 형태의 구식의 사고에서 탈피했다는 관점에서 이미 예고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수수한 코트, 실용적인 부

11) Jennifer Craik, [The Face of Fashion], Chap8, 1994, p.186.

츠, 수수한 모자, 리넨이 재물에 과시적인 러식과 장식에 대해 조소하는 지각있는 신사의 상징으로 변했다.¹²⁾

18세기 말엽 남성복의 외관은 패션의 취향에 의해 단순해졌다고 보다는, 여성모드가 보다 복잡하고 환상적으로 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반격으로 보다 단순해진 것이 분명하다. 여성복의 패셔너블한 특성이 과도하게 극단적으로 나타남으로써 남성복의 특성으로서의 절제는 더욱 자극되었을 것이며, 분별있는 남성들은 분명 여성복의 그러한 과도함을 피하려 했음에 틀림없다.

③ 19세기

1800년 이후의 남성복의 코트, 조끼, 셔츠, 바지 등의 근대적 발전은 새로운 소재뿐 아니라 새로운 해부학적 근거를 요구하였다. 바지의 패션도입은 프랑스혁명 이후로서, 다소 헐렁한 바지는 긴다리에 꼭끼는 바지로 발전되었고, 현대의 여성용 스키바지나 패션바지처럼 바지의 밑단이 발등아래에서 천으로 고정되었다. 이의 숨은 의미는 다리가 길어보이고 늘씬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17세기와 18세기 중반까지 보여졌던 남성의 허프와 허벅지를 강조하여 상체를 길게, 하체를 짧게 보이게 하던 스타일에서 정반대로의 큰 변화를 느끼게 한다.

1815년에, 바지는 가느다랗고 성가신 판타롱을 대신하게 되었고, 남성의 팔과 다리는 유연한 직물로 부드럽게 원통으로 감싸졌다. 바지는 "프록(frock)"이 그랬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주름이 지고 단정치 못한 모습의 격식을 차리지 않는 비공식적 패션이었는데, 나중에 재단사들은 시골코트로 부터 비롯되어진 부드럽고 새로운 추상적 개념에 어울리도록 바지를 형식화시켰다. 이렇게 새롭게 구성된 우아한 바지는 종종 더 완벽한 일직선의 수직적인 맞음새를 형성하기 위해 발등 아래에

가죽끈을 대어 지탱을 시켰다.

1830년대는 가장 구식의 시골 프록(frock)을 우아하게 만든 프록 코트가 도시의 적절한 일상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프록의 풀 스커트와 폐쇄된 앞면은 인체의 가량이 부위를 감추어 주었으며, 수수하게 사업가나 전문직 남성을 위한 복장 형태를 창출해 내었다. 이후로 일상적 코트는 모두 인체의 가량이 부위를 가리게 되었다.

19세기에 있어서 남성복은 공단이나 무늬비단으로 만든 의복은 사라지고 점점 수수해졌으며, 집단과 개인의 불일치를 상징하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남성복 변화의 결정적인 모습은 바로 멋지게 차려 입은 덴디(dandy)의 단정한 차림새였다. 19세기의 남성복은 18세기의 컨트리(Country)복과 스포츠 웨어를 변형시킨 개작물이었으며, 이 스타일을 만들어낸 것이 덴디인 것이다. 또한 당시에 검은색 복장은 평상복과 정장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었으며, 따라서 엄숙함과 진지함에 기초한 남성적 특성의 검은색 의복은 19세기를 지배하였다.

이들의 의상 스타일(그림10)은 영국 시골풍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것으로 덴디들은 시골풍의 수수한 복장 스타일을 뒤엎고 새로운 일반적인 남성 의류를 창출해 내기 시작했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초의 다양한 스타일이 20세기를 통한 남성복의 패턴을 결정했다. 덴디 스타일에 대하여 브루멜(Beau Brummell)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말하고 있다.

“향수를 뿌리지 않고 양질의 리넨 제품의 옷을 입으면서, 너무 뻣뻣하거나 타이트하지 않고 지나치게 패션(fashion)에 민감하지도 않다.”¹³⁾ 또한 덴디 맨(dandy man)은 가족이나, 他人과의 친분 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性生活이나 經濟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책임도 질 필요가 없는 전형적인 새도시인으로서 단지 자신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나르시스트였다. 이러한 덴디맨들은 옷의 재단이나

12) Ann Hollander, OP · Cit p.118.

13) Elizabeth Wilson, OP · Cit p.80.

어울림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시기를 도래시켰으며, 새로운 美를 창조해 내었다. 이러한 상황은 18세기 후반 혁명의 產物로서, 이를 계기로 하여 사회적으로 새로운 사회계층이 형성되었는데, 지금까지 富와 출생신분으로만 당연히 특권을 누리던 사회에서 이 대신에 스타일과 포즈를 통한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댄디들은 자신들의 위트나 인격으로만 먹고 살았으며, 이들의 스타일은 영국에 전해져 공화당 정치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스타일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댄디들은 수정자본주의에서 발생하였으나, 사실 그것은 그것이 발생한 사회와는 대조적인 반자본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발작(Balzac)이나 보들레르(Baudelaire)도 댄디를 재능있는 자들이 새로운 귀족주의를 시도하고자 하는 반역행위로 여겼다.



(그림 10) 패션판화, Grand Neglige, from La Mesangere, French, 1808.

댄디 스타일은 2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그 하나는 패션을 거부하는 전통적인 남성의류를 창조해낸 것이었으며, 이는 패션에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그 자신들을 눈에 띄게 만들었다. 이러한 패션은 셔츠에 넥타이를 갖춘 코트, 조끼, 브리치와 같은 17세기식의 구조를 재형성하여 구성한 것으

로 이 모든 새로운 현상들은 재단법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유형의 영웅을 형상화하였던 멋장이 남자 브루멜(Brummell)이 고안해 낸 남성복이다. 샤넬(Chanel)은 이것을 여성의류에 적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와 정반대의 스타일도 이끌어 왔다. 그들은 또한 항상 집단과는 다른 견해를 표현하고자 독특한 개성을 발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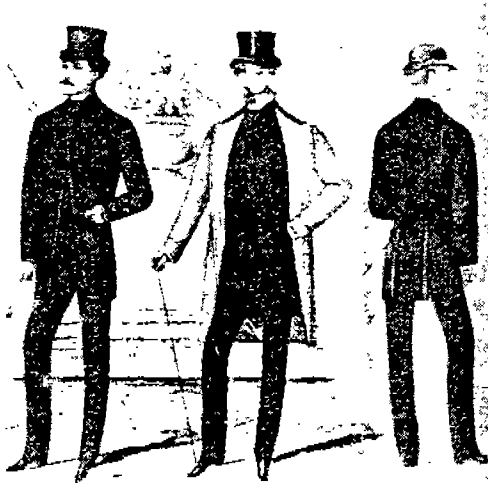
새로운 도시적 댄디 모드를 통해서 남성의 영웅주의는 단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만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브루멜은 근본적으로 우월한 존재는 결코 혈통의 유전적 요인에 의한 귀족이 아님을 입증한 셈이었다. 그의 우월성은 완전히 개인적인 것이었으며 그것은 단지 그 자체의 재봉상의 섬세함 속에서 완벽해져야만 했다. 즉, 지위와 연관된 어떤 가치를 나타내는 외관상의 지표없이 외형 그 자체로서만 완벽해져야만 했다.

19세기 후반에 와서는 도시의 신사들이 착용하던 공식적인 일상복에서 코트와 바지의 재질을 서로 다른 것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때 어둡고 부드러운 색상의 프록코트는 밝은 색상의 바지와 입혀질 수도 있었으며(그림 11), 어두운 색상의 모닝코트는 줄무늬 바지와 함께 입혀지거나, 조끼 역시 여전히 다른 재질로 만들어짐으로써 어떤 비공식성을 내재하였다. 당시 신사계급의 “라운지 수트(Lounge-suit)(그림 12)는 단일 직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애초에 한가한 시골 생활과 매우 사적인 용도를 의도해서 만들어졌었다. 이 수트의 약간 거친 표면은 비교적 밝은 색상으로 부드러운 트위드나 체크무늬의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짧고 편안한 코트, 조끼와 함께 착용되었다. 또한 이는 프록코트의 공식적인 권위감을 없애어 착용자에게 긴장감을 풀어주고 친근한 인상을 갖게 하였다. 이 시기의 농부, 노동자는 정장을 요하는 모든 행사에 이러한 류의 정장을 착용하였고 이는 매우 튼튼한 직물과 어두운 색상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 쓰리피스 수트는 모든 보통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착용하는 공식적인 의상이었다. 물론 대도시에서는 입속한 프록코트와 모닝코트가 줄무늬 바지,

그리고 엄격한 모자, 뾰족한 넥타이와 장갑이 함께 착용되었으나 이는 1차대전과 2차대전 사이에 점점 소멸되었고, 이러한 동안 수수한 라운지 수트가 직업과 계급에 관계없이 이 시기의 모든 남성들에게 다용도적인 공식적 의상이 되었다.



(그림 11) 철학자이자 고고학자인 Felix Ravaisson - Mollien Circa 1850~1860.



(그림 12) 라운지수트, 좁은 라펠의 프록코트와 모닝코트. *Journal des tailleurs*, March 1885.

20세기 초, 현대풍의 도시적인 욕구는 평민들의 라운지 수트를 새로운 패셔너블한 의상으로 격상

시킨 반면 긴자락이 달린 연미복이나 모닝코트, 그리고 흰색 넥타이의 정장은 특별한 행사에나 착용하는 전통적인 의상으로 변해갔고, 이제 더이상 부유한 도시 남성들의 옷장에는 들어있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수트는 이후 경제적 성장을 이룩한 미국 기성복업계의 발전과 영화산업의 발전으로 전세계적으로 보급되어 세계남성이 가장 보편화되고 일반적인 의복이 되었으며 영국과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섬유산업발전에 의해 오늘날의 신사복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Ⅲ. 정장 수트(suit)의 美學的 特性

① 신고전주의적 관능성

1750년경 폼페이와 허큐라니움(Herculaneum)에서 발견된 유물로 하여 고대에 대한 시각적 의식이 새롭게 부상한 이후 18세기 말엽 예술가들은 고대의 형태 속에서 근대적인 이상성을 나타내려고 추구하였다. 따라서 당시 유럽의 모든 예술적인 삶은 고전주의적 건축의 질서와 고전예술의 형상을 가능한 한 원래의 형태로 차용하기 위해 진보적으로 변형되었다. 기본적인 형태의 근원으로서는 고대성을 사용함에 있어 신고전주의적 미의 부활은 근대 디자인의 초기 형태의 근원으로 간주된다. 신체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는 재인식되어 완전히 고대의 형태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고대의 누드 조각에서 완성되어진 명확한 윤곽을 지닌 팔, 다리, 머리, 근육등의 구조와 조화되는 복부, 엉덩이, 가슴등의 구조는 가장 순수한 선천적인 구조로 채택되어졌다. 의복은 많은 실제의 신체를 무시하는 대신, 그렇게 재발견된 '자연적인' 해부학적 사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나타내게 되었다. 늘 그렇듯이, 미술에서의 의복표현은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이끌렸다. 중세 후기에 진정한 패션이 시작된 이후, 남성 재단사가 남·여 모두의 의상을 만들면서 약 4세기 동안 의상에서 뚜렷이 구분되는 성별의 상징이 유지되어 왔다. 남성복과 여

성복은 형태가 서로 달랐는데, 이것은 서로 관능적 측면의 강조 때문이었으며, 상상력에 있어서는 남성누드를 근거로 발전해 온 남성패션이 항상 앞서갔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17세기 후반전까지 남·여의 의상은 꽤 유사했었다.

19세기 이후의 남성수트의 근대적 발전은 인체의 새로운 해부학적 근거를 요구하였는데, 당시의 한가지 새로운 제안은 신선함과 더불어 미적인 측면까지 지녔던 고전적인 고대 남성 영웅의 누드였다. 인간형상에 보다 근접한 의복형태를 창출해 내려고 하기 이전인 18세기 후반 수많은 입상 남성 초상화의 기초로서 아폴로(Apollo)의 포즈가 택해졌는데, 18세기 말엽 신고전주의 화가들과 디자이너들이 급진적으로 古代의 형태 속에서 근대적인 이상성을 나타내려고 추구할 즈음 고전적 고대성은 이미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¹⁴⁾ 고대의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은 인체를 존중하고 찬양하였으며 그들의 의복은 이러한 그들의 사상을 반영한 것이었다. 예술에서는 옷을 걸치지 않은 나체를 칭송했고, 의복이 걸쳐졌더라도 그것은 아주 얇은 직물의 드레이프로 가려져 몸에 밀착되게 하거나 인체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였다. 표면적인 암시보다는 기본적인 형태의 근원으로 고대성을 사용함에 있어, 신고전주의적인 미의 부활은 근대 남성복디자인의 초기형태의 근원으로 간주된다.

인체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는 완전히 고대의 형태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고대의 누드 조각에서 완성되어진 명확한 윤곽을 지닌 팔, 다리, 머리, 근육 등의 구조와 조화되는 복부, 엉덩이, 가슴 등의 구조는 플라토닉 형상인 가장 순수한 자연적인 구조의 진실로서 채택되어졌다.

인체를 존중하는 고대 그리스의 관습은 남성 인체를 누드로 만들고, 여성의 인체는 완벽하게 감싸놓았다. 기원전 3세기 까지 고대 그리스 조

각에 나타나는 여성은 섬세하게 주름진 베일을 통해 가려진 자신의 미를 과시하였지만, 영웅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그러나 등 뒤로 짧은 케이프를 두름으로서 강화된 암시와 더불어 완벽한 남성의 힘, 완벽한 미덕, 정직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형태였다.¹⁵⁾ 즉, 그리스인들은 인간의 나체를 인간의 상상력에 강한 호소력을 갖는 아름다움으로 고안해 내었던 것이다. 따라서 예술로 표현된 그리스 남성의 나체는 똑바로 서서 나신의 아름다움이 좀 더 강조되어 돋보이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므로, 이 때 대부분의 의상은 망토류의 드레이퍼리로 둘러져 있다.¹⁶⁾ 한 예로 아폴로(Apollo Beluede)의 망토는 아름다운 나체의 어떤 부분도 박탈하지 않고 고귀한 아름다움을 창출해 내도록 구성되어 있다(그림 13). 이렇게 그리스 남성들은 정면의 누드를 강조하고 우아함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망토류의 드레이퍼리를 등 뒤로 걸쳤다. 따라서 당시의 그리스인들의 직물의 사용은 인체의 아름다움과 움직임의 고양시키는 방법에 주안점을 두어 해석되었다. 또한 그리스 남성 조각상에도 여성보다 훨씬 다양한 드레이퍼리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몸을 가릴 필요가 없는 남성들에게 있어 이러한 드레이퍼리의 기능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특징과 지위를 표현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 남성들에게 있어 의복의 드레이퍼리의 기능은 단지 힘과 아름다움, 고귀함을 나타내기 위한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기도 하였다. 영웅의 조화로운 누드의 미는 자신의 타락되지 않은 도덕적, 정신적 자질에 대한 視覺的 表現이었다. 반면에 정숙성은 이미 특징적인 여성의 도덕적 미덕이 되어 있었다. 여성적인 매력은 소위 '정숙성'이라는 필터를 통해 완전히 여과되어져야 했었고 그럼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피부에 달라붙는 듯이 몸을 감싸는 의상이 등장하였던 것이다.

14) Ann Hollander, OP · Cit p.122.

15) Ibid, p.125.

16) Ann Hollander, [Seeing Through the Cloth], p.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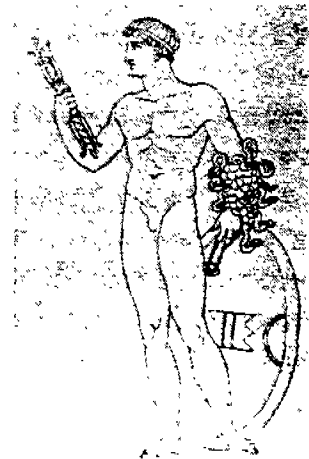
(그림 13) 올림피아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박공벽,
BC 470~456, Marble.

완벽하게 3차원적으로 남성의 인체를 둘러싸고 자 하는 근본적인 도전에 접해있던 재단사들은 기존의 남성복을 관점으로 하여 선망되는 고대의 누드 영웅을 완전히 재창조하기 시작하였다. 장식되지 않은 남성의 완벽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고대의 누드를 개조하여 봉제상의 규율에 맞도록 누드 영웅의 추상적 상을 창조해야만 하였다. 이것은 기본적인 봉제상의 구성요소들을 포기하거나 새로운 구성방법에 의하지 않고서 피부를 전혀 노출시키지 않은 채 기존의 수트를 수정함을 의미하였다.

이리하여 근대의 남성수트는 옛날의 짧은 다리와, 볼록한 배가 강조된 복숭아 형상의 인체를 늘씬하고, 근육이 잘 발달된 긴 다리끝 지닌 매우陝시한 모습으로 대체시켰던 것이다. 수트의 정교한 선은 인간의 골격과 근육을 바탕으로 한 곡선에 추상적인 디자인을 형성하였고, 흐릿한 질감은 피부의 매끄러움을 암시하는 듯한 관능적인 모습을 창출해 내었다. 의복과 인체 사이에서 뚜렷하게 대비되어 강조된 의상표면은 그 자체적으로 쉽게 동물적 요소를 반영하면서 서로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만들어 내게 하였다. (그림 10, 14참조)

또한 이 시기의 예술적으로 창조된 고전주의적

인 자연 그대로의 흐릿한 색조에 의한 단순성의 효과는 누드의 형상을 완벽하게 만든 신고전주의藝術과 취향 속에서 이미 명확히 드러났던 관능적 경향의 강화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기도 하였다. 여성의 선정적인 얇은 모습런 만큼 남성복에서도 인체를 기초로 한 새로운 정장의 형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고전주의적인 고대성이 아니라性的인 매혹성이었던 것이다. 잘 다듬어진 고전주의적 형상과 새로운 조야한 관능성과의 짜릿한 결합, 그리고 새로운 창조적인 독창성과 새로운 감성적인 진실성의 결합은 어떤 당대의社會의 내용보다도 깊이있는 충분한 정서적 의미를 지녔음에 분명하다.



(그림 14) Thomas Hope, 쥬피터의 그림, 로마기념물의 사본, 'Costume of Ancients' 중에서, 영국, 1812.

1910년대의 새로운 남성모드의 관능적 성격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특질에 의해 강화되어졌다. 초기 르네상스 시대의 타이트하게 패드를 댄 매우 짝달막한 남성 더블릿의 경우처럼 옷자락, 후프스키트, 코르셋, 아주 높은 하이힐 등 정반대적인 성적 요소의 결합에 의한 구성에 잘 드러나 있듯이 관능적 영웅주의의 또다른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균형잡히고 일관된 현대적 단순성은 항상 활력이 넘치고, 정적이지 않으면서 관능적인 변화

를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대적 단순성이 모든 형태의 디자인에 존재하는 고도의 관능적인 주제가 되었다. 1830년대 “프록 코트”가 도시의 일상복으로 된 이후 프록의 폴 스커트와 폐쇄된 앞면은 인체의 가랑이 부위를 감추어 주었으며, 이렇게 인체를 은폐하는 코트를 보완할 목적으로, 크라밧(cravat)이 더 화려해지고 암시적으로 되면서, 점점 더 뻗뻗해지고 더욱 선명한 색상으로 되어졌으며, 나중에는 심지어 아주 흥분적인 공격적 수직선으로 강조되었다.

이와 같이 정장은 전체적으로 추상적이면서도 완전히 관능적인 모습을 유지하였다.

② 고전주의적 단순성과 소박성, 강인성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은 아무리 사치스럽게 가발을 쓰고, 보석장식을 하고 또한 의상이 아무리 정교하게 양식화 되고 주름장식이 되어 있더라도, 그들은 뒤에 길게 늘어져 끌리는 옷자락이나 거대한 소매, 후프스커트와 같은 것들은 착용하지 않았다. 그들에 있어 의복과 신체간의論議는 중요했다. 이를테면 단일 의상에 존재하는 타이트한 요소나 험령한 요소 사이에 다른 것을 첨가시키거나 하는 다른 어떤 미학적 다양성에 빠지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자연 그대로의 인체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그들의 美의 이상이였다. 17세기의 남성복은 정직하고 편안하고, 단일하다는 지속적인 관념을 최초로 암시하였다. 17세기에, 남성들의 겸소한 정장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다른 영향력이 작용하였는데, 이는 이 시기 전반에 모든 지역에서 널리 만연되고 있던 군인다운 우직성 뿐만 아니라, 사제의 정숙성에 대한 새로운 동정심에 의해 발생했었다. 이 시기에 사제복은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의 세력 확장과 더불어 공적인 일에 시각적으로 강렬한 위풍있는 存在로 부각되었다.

프로테스탄트 국가에서 신생의 상인과 전문계층의 시민에게 단순한 흰색의 리넨에 의해 재생된 어두운 단색의 수트는 그 옷이 지니고 있는 오래된 사제의 종교적 지성과 고결성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가족과 많은 단추를 포함한 단순한 직물구조는 은근히 강력하면서도 군대식의 강직함을 암시하였다. 이러한 효과들은 처음에는 북서유럽과 공화정치하의 영국에서 비귀족적인 부르조아 계층에서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사제복의 엄격함과, 군인복장의 단순한 거친면의 대립적인 요소들의 창조적인 결합은 남성복에 지속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해 왔다.¹⁷⁾

종교와 전쟁은 성별간의 차이점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다. 17세기 후반 유럽 여러 국가에서의 일반적인 의복 구조는 수세기 동안 전유럽을 휩쓸었던 종교전쟁¹⁸⁾ 이후 남·여의 모습에서 여성은 광택이 나는 스커트 차림으로 안정된 아름다움을 과시하고 있는 반면 남성은 큰 모자에 부츠, 칙칙한 코트의 단순성과 소박성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근대적인 호소력을 지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18세기 말경 수트의 우아함은 정교하게 가공된 표면에서 수수한 기본형태로 완전히 변모되었으며, 궁정식의 세련됨에서 자연 그대로의 단순성으로 완전히 변화해 갔다. 재단사들은 잘 맞지 않는 거친 시골 코트를 예술적으로 격상시켜서 가공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의상 구조로 변환시킴으로써 아폴로와 같은 고대조각상과 관련된 고귀한 자연으로 변모시켰던 것이다.

거의 인지할 수 없도록 섬세하게 얇아진 패드와 굴곡진 박음질처리, 열처리 등으로 둔탁하고 거친 시골 코트는 점점 기이할 정도로 균형잡힌 의상으로 세련되어져 갔다. 흉부 상부와 어깨에 댄 섬세한 패드는 매우 주도면밀하게 얇아졌으며 수트코트의 반쯤 아래로 내려오면서 패드는 없어지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패드를 대지않은 자연스러운 인

17) Ann Hollander, *Sex & Suit*, p.106.

18) 1618~1648년 까지 계속된 30년 전쟁이 그 대표적 예이다.

체 그 자체의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를 자아 내었다. (그림 15)



(그림 15) Eugene Delacroix, Baron Schwiter, French, 1826~28.

정교한 재단에 의해 칼라가 강조되고 목주변을 둘러싸도록 펼쳐리하여 뾰뚱하게 하였으며, 코트의 본체와 매끄럽게 일직선으로 맞추어 연결된 라펠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완벽하게 재단된 칼라와 평평한 라펠은 현재도 수트에서 가장 특징적인 요소이며, 의상에서의 강인함의 근대성을 상징하는 공식적인 기호가 되었다.

근대 남성수트는 남성들을 성실한 사람으로 보이게 했는데, 그 이유는 숄기선이 드러나고 평직 위에 그 직조의 흔적이 역력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남성을 매우 합리적인 인격의 소유자로 보이게도 하였는데, 이는 완벽한 재단, 맞춤, 비례 때문이었으며, 이는 남성들로 하여금 전혀 기교를 부리지 않는 정직하고 강인한 모습의 외모를 부여해 주기도 하였다. 현대정장의 전체적인 업적은 오로지, 셔츠와 일종의 넥타이를 갖춘 코트, 조끼, 브리치와 같은 17세기 식의 남성복 구조를 간단히 재형성함으로써 달성된 것이었다. 이는 고전주의적인 표현이었던 나체의 근육과 동일한 구조로 단

순한게 형상화시킨 것이었으며, 이제 그것은 나체의 영웅이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더욱 순수해 보인다는 인상을 주게 되었다.

또한 근대 정장의 장식이 없는 소박한 형태는 개인적인 인체의 독특한 우아함을 강조하고 전통적인 고도의 재단상의 방법으로 그 우아함을 창출해 내었다. 남성의 지위나 심지어 행동조차도 그의 수수한 코트가 지닌 훌륭한 재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으며 다만 그의 個人的 자질만이 문제시 되었다. 따라서 신고전주의적인 근대 남성정장은 당시에는 평등의 척도가 되었다. 새로이 창조된 근대의 완벽한 남성으로 인식된 인물은, 영국의 시골 귀족의 특성과 순진무구한 자연 그대로의 아담의 특성, 그리고 창조자이자 파괴자인 나체의 아폴로의 특성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속적으로 어필되어 결합된 인물이었다.¹⁹⁾ 이러한 모습은 19세기 당시 새로이 숭앙되기 시작한 고대의 예술로부터 형태의 단순한 순수성에 핵심을 두어 나타난 사실적인 윤곽선 속에서 재창출되어 졌다.

신고전주의적 근대정장의 부흥에는 보다 일반적인 미학적 배경이 있는데, 당시 영국의 실용주의적인 디자이너들은 고전주의적 디자인의 기저에 깔려있는 미학적 장점을 고집하였다. 본질적으로 이와같은 시기에 영국의 재단사들은 이와 유사한 일종의 '재형상화(remodelling)'를 시도했었다. 그들은 프랑스와 이태리에서 유행하는 모드와는 대조적으로 네델란드, 러시아, 독일, 스칸디나비아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던 노르딕(Nordic; 게르만족 스타일) 스타일과 보조를 맞추면서 "단순성"이라는 영국전통을 살려 나갔다. 이들의 신고전주의적 수트는 후기 조지아풍의 주택처럼 근대성의 승리였다. 새로운 남성복의 형태는 주택이나 가구처럼 근대적 기술원리와 고대적 이상 양자에 근거한 우아함과 유용성이 동시에 명백하게 융합된 것이었다.

근대 남성복은 르네상스 패션의 특징이었던 절

19) Ann Hollander, OP · Cit p.135.

제된 모습을 만들어 내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절제미의 강렬한 부활은 19세기 남성들의 관심사에 탁월한 몫을 더해 주었으며, 근대 남성패션의 단순성과 기능성을 조화시킨 것이었다.

또한 고대성을 나타내는 공통된 직물로서 “모직”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시골 코트뿐 아니라, 古代의 토가도 모직으로 만들어졌다. 설과적으로 근대적이면서도 고대적인 자연인을 창조해 내고, 또한 고대성과 단순성을 지닌 소재인 모직과 면, 리넨은 근대 남성복의 단순성을 상징하는 또다른 예라 할 수 있다.

③ 색상의 자연성

고대의 이상적인 신체비례는 물론 이상적인 색상까지도 새로이 영웅시된 혈령하고 단정치 못한 수수한 시골 남성복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발전되었다. 영국과 북유럽에서의 모든 18세기 신고전주의 미술은 지속적으로 투명한 단색을 강조하였다. 색상의 억제된 사용은 근본적인 윤곽과 형태를 좀 더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보다 사실적인 윤곽선 속에서 고대의 심미적인 단순한 순수성이 보다 잘 表現되었다.

무색의 가치는 백색의 대리석으로 된 고대 예술품이 필적하기 시작한 미켈란젤로와 다른 조각가에 의해 더 많이 애호되었는데, 그러한 단색은 대개는 다른 대부분의 미술이나 장식 모드에서의 화려한 색상들에 의해 상쇄되어져었다. 사실 고대 그리이스 의상은 색감과 패턴감각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본래 다채로운 색상의 조각상들이었던 것이 세기가 거듭되면서 단색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당시 르네상스(Renaissance)와 바로크(Baroque)미술을 고전화시킨 화가들은 그림 속에서 고대를 표현할 때 외레이 계속해서 유색을 사용하였으며, 다비드(David)와 여타의 신고전주의

화가들 역시 여전히 총체적인 스펙트럼을 이용해 고대의 세계를 환기시켰다. 대개 고대의 색상은 검은색과 붉은색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노란색과 흰색도 있었고, 후대에는 아주 드물게 녹색과 보라색의 터치가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고대의상의 실제 색상에 대한 강한 시각적 개념은 후세인들에게 부정되어 왔다.²⁰⁾

고대의 무색상의 미학적 효과는 과거 어느때 보다 18세기 말에 보다 강력하게 신뢰되었다. 당시 영국, 네델란드, 스칸디나비아, 독일 등의 유럽에서는 예술이나, 다른 모든 분야에서 화려한 색상이 당분간 권위를 상실하였는데, 아마 그 부분적인 이유는 화려한 색상이 공포스럽고 피바다로 얼룩진 휴지기(休止期) 이후에 전통적인 왕권의 권위를 전제적인 거대한 제국으로 대체한 프랑스와 연관성을 지녔기 때문일 것이다.²¹⁾ 화려한 색상에 대한 포기는 아마 이러한 생생한 사건으로부터 탈피하고 싶은 욕구의 표현으로 나타난 것일수도 있으며, 또한 프로테스탄트의 총동과 제휴를 한 일종의 정화로서 신고전주의적 확실성을 추구하려는 시대의 흐름을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시스틴(Sistine) 성당의 프레스코(Frescoes) 벽화는 18세기에 이미 퇴색되어 회색 빛을 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프레스코 벽화는 티티안(Titian)이나 루벤스(Rubens)의 어슴프레하게 뿌옇게 채색하는 화풍에서 고안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고귀하면서, 오래된 심오한 고대의 비전을 암시하는 단조로운 회미한 색상으로 인하여 더 숭배되었다.²²⁾ 조슈아 레이놀드(Joshua Reynolds) 경은 미술에서의 화려한 색상은 관중성을 어필시키는 기본요소로 작용하며, 그 가치하고 저속한 유혹성을 지녔다고 저술하고 있는데, 당시 영국의 신고전주의를 숭앙하는 재단사들은 이와 같은 조슈아 경이 명시한 지배적인 견해를 따르면서 침묵하는 부연의 색상을 선호하면서 광택을 없애고 흐

20) Ann Hollander, [Seeing Through the Cloth], p.13.

21) Ann Hollander, Sex & Suit, p.137.

22) Ibid.

릿하게 끝마무리하는 새로운 영역에 심취하였다.

엄격한 청렴미가 거물 남성복의 메시지가 됨으로써 맞춤복은 인체에 꼭 맞는 것 보다는 흐릿한 색상의 직물의 미세한 조직과 세련된 재단에 차별을 두는 것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따라서 남성복의 색상은 보다 어두침침해졌다. 의복에서 이러한 어렴풋한 무색의 이용은 어떤 수수한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드자체가 형상화했던 것과 동일한 고전주의적인 미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고전주의적인 것에 의한 이상적인 남성 외관에 대한 수사학은 인체의 비례를 근거로하여 남성복의 윤곽선을 고전화시키는 것 말고도 광택이 나지 않도록 하면서 색상을 버리고 무색으로 처리하여 결과적으로는 더욱 고상하고 품격있는 아름다움으로 보일 수 있도록 강요하였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검정, 갈색, 담황색, 백색의 영역으로 정의되었다. 또한 자연에 대한 영원한 맹목적인 정복을 나타내는 한가로운 시골생활이나 시골 스포츠에 대한 강렬한 취향이 17세기의 종교와 전쟁의 대립적 요소들에 의한 창조적인 남성복 발생에 가미되어졌는데, 이러므로 해서 영국의 시골의상은 땅과 들판 숲, 바위등과의 조화를 일구어 내는 것 이외에도 개나 말가죽으로 만든 편안한 암갈색을 암시하게 되었다. 즉 자연에 의한 조화로운 자연색이 남성복의 상징이 된 것이다. 따라서 자연세계와 단조로운 시골생활을 암시하는 어두운 녹색과 저명도 푸른모직의 코트도 이러한 맥락에 포함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흐릿한 끝마무리의 단조로운 색상체계와 더불어 선의 명확성은 아주 핵심적인 것이었는데, 자연을 진실되고 순수하게 드러내는 신고전주의적 공식에 의한 완벽한 선의 구성은 화가와 재단사들에게는 어떤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상으로 마무리하는 것 보다 더 순수하고 아름다운 훌륭한

성과물이었던 것이다. 19세기 중엽의 회화는 이러한 시대적 취향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후리스(Frith), 모네(Monet), 마네(Manet)와 같은 화가들은, 엄격하고 어두운 색상의 관목숲처럼 암갈색의 칙칙한 나무밀등²³⁾과 같은 어슴프레한 색조로 건장한 신사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예술적으로 창조된 이러한 꾸밈없는 자연그대로의 단순성의 효과는 누드의 형상을 완벽하게 만든 신고전주의 예술과 취향 속에서 이미 명확히 드러났던 관능적 경향의 강화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었다. 색상의 부재는 분명히 더 회화적(Graphic)으로 보이게 했다. 프랑스에서, 관능적인 퇴색한 듯한 무색은, 영국예술의 모방을 통해 나름대로 유행되었다.

이어서 20세기 전반부에 또 다시 다양한 색상으로부터 후퇴를 함으로써 새로운 혁신적인 형태미가 달성되었다. 즉 현대 복식사에서 항상 추구해 온 혁신적인 노력은 본래의 자연스러운 의상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었고 이는 곧 기하학적인 형태를 동반하게 되었는데,²⁴⁾ 그 이유는 다양한 가능성 속에서 인간이 자연의 불일치로부터 창조해 낸 것 중 가장 단순하고 원초적인 형태가 사각형이나 원형과 같은 기하학적 형태이기 때문이다.²⁵⁾ 즉 큐비즘(Cubism)의 가장 극단적인 비전은 형태의 다양한 기하학적 정확성에 집중하면서 생생한 색조를 제거시키는 경향을 띠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있는 그대로의 내적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존중은 인위적인 화려한 장식의 호화스러운 색상에 의해 흐트러지지 않는 외형적 가치에 대한 취향을 부흥시키는데 일조를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취향은 선과 형태, 표면구조만을 강조하는 흑백사진과 영화 촬영술에 의해 더욱 지지되었으며, 이 모든 것이 근대 남성수트의 새로운 형태를 유지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23) Ann Hollander, OP · Cit p.98.

24) 채금석, OP · Cit p.175.

25) [East meets West-issey Miyake의 발상과 전개] Tokyo : 平凡社, 1985, p.50.

IV. 結 論

남성수트는 재료면에서는 현대의 것이 신고전주의 시기와는 다른 목적과 근원을 지니고 있지만, 후기낭만주의, 빅토리아, 아르누보(Art Nouveau)의 개념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형상이 단절되지 않고 현시대에 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는 본래 신고전주의적 양식으로서 당시 고전주의적 디자인의 시각적 모티브들은 고대 그리이스 민주주의와 로마의 기술의 명징성과 힘을 암시하였다. 즉 그리이스나 로마풍의 디자인은 정치적인 면 뿐만 아니라 선정적인 호소력을 갖고 있었으며, 또한 당시 새로이 생겨난 다양한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열망들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형식으로 여겨졌고 이는 다시 금세기 디자인에 반복되면서 현대적 스타일 속에서 창안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남성수트는 근대 민주주의 운동과 같이, 18세기 후반의 신고전주의 열망에서 인지되어진 근대적 미학이론을 반영하고 있다.

1) 수트의 변천과정을 보면

① 중세 초기의 특징을 지닌 사슬갑옷은 14~15세기 동안 몸통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단단한 판으로 된 갑옷으로 발전되었고 이 속에 받쳐 입던 속옷의 일종인 지뽕(gibon)이 이후 튜닉이나 로브와 같은 몸에 꼭 맞는 형태의 겹옷으로 변모되었다. 로브와 형태가 비슷한 튜닉은 더블릿(doublet)이 되었고, 이것이 남성자켓(jacket)의 기초가 되었다.

② 17세기 후반 남성정장-코트의 형태는 패드를 댄 더블릿과 가운데로 대체되었고 그 코트는 안쪽에론 바지가 아닌 스타킹과 함께 승마용바지(breeches)를 착용하였다. 이후 브리치는 패드를 대지 않은 험렁하고 부드러운 형태로 변모되었으며, 단추가 달린 조끼(waistcoat)가 코트속에 입혀짐으로써 결국 쓰리피스형의 남성수트가 탄생되었다. 이러한 초기의 남성수트의 발전상은 상류계층의 남성들이 오랫동안 지녀온 갑옷 같은 더블릿을 통해 표현해 왔던 것처럼 매우 세심하게 묘

어매거나 집어 넣던 스타일과는 다른 편하게 차려입는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욕구에 일치한 것이다. 남·여 의상의 분기점의 시작은 18세기에 주목되며, 이 시기에 남성복은 플레이어가 진 몸에 꼭 맞는 코트와 긴조끼, 무릎길이의 브리치, 실크스타킹, 버클달린 붉은색 힐을 갖추어 신은 수놓은 궁전용의 프랑스타일과 전원생활용으로 도시에서도 폭넓게 수용된 영국스타일의 평상복, (그림 5 참조) 이렇게 두가지로 그 특징이 지워진다. 18세기 이후 의례적인 궁전의 의식들이 경멸되면서 시골신사들의 수수한 리넨셔츠, 실용적인 부츠, 수수한 모자는 세련된 모습으로 각색되어 품격있는 신사의 상징으로 재형성되었다.

③ 19세기 초반 몸에 꼭 밀착되는 브리치는 일직선의 수직선 형태의 여유있는 부드러운 원통형으로 변모되었고, 18세기의 컨트리복과 스포츠웨어를 변형시킨 댄디풍을 만들어 내었다. 이 댄디스타일은 셔츠에 벵타이를 갖춘 코트, 조끼, 브리치의 17세기식 남성복구조를 재형성하여 구성한 것으로 허리를 조이고 히프를 강조한 모래시계형의 스타일을 창조해 내었다.

19세기 후반에는 남성들의 공식적인 일상복에서 코트와 바지의 재질을 서로 다른 것으로 만들거나, 어둡고 부드러운 색상의 프록코트거 밝은 색상이나 울무늬바지와 함께 착용됨으로써 수트의 비공식성을 내재하였다. 또한 비교적 밝은 색상이나 부드러운 트위드나 체크무늬의 소재로 만든 한가한 사적용도로 만들어진 라운지수트(lounge suit)는 점차 직업과 계급에 관계없이 다용적인 공식적 의상이 되어 현대수트로 발전되었다.

2) 수트의 미학적인 특성은

① 남성수트의 근대적 발전은 인체의 새로운 해부학적 근거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제안은 신선함과 美的 특성까지 내포한 고전적인 고대 남성의 누드이다. 18세기의 신고전주의적인 미의 부활은 근대 남성복 디자인의 초기형태의 근원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재단사들은 당

시에 선망되던 고대의 누드영웅을 재창조하고 남성의 완벽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고대의 누드를 봉제상의 규율에 맞도록 기존의 수트를 수정하여 재창조하였다.

따라서 근대 남성수트는 과거의 짧은 다리와 볼록한 배가 강조된 복숭아형상의 인체를 늘씬하고, 근육이 잘 발달된 긴 다리를 지닌 매우 관능적인 모습으로 대체되었다. 수트의 정교한 선은 인간의 골격과 근육을 바탕으로 한 곡선에 추상적인 디자인을 형성하였고, 흐릿한 질감은 피부의 매끄러움을 암시하는 듯한 관능적인 모습을 창출해 내었다.

② 17세기 전반에 걸쳐 만연되고 있던 군인다운 우직성과 사제의 정숙성에 대한 남성들의 동경은 겸소하고 수수한 남성수트를 발생하게 한 원인이 되었으며, 이는 자연 그대로의 인체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에 미의 이상을 두었던 신고전주의적인 예술과 취향의 추구 속에서 더욱 발전되었다.

18세기 말경 고전주의적 미학의 장점을 추구하던 재단사들은 거칠고 투박한 영국의 시골코트를 예술적으로 격상시켜서 당시 프랑스와 이태리에서 유행하는 모드와는 대조적으로 네델란드, 러시아, 독일, 스칸디나비아에서 뚜렷이 나타났던 노르딕(Nordic) 스타일과 보조를 맞추면서 고대조각과 관련된 고귀한 자연스러운 의상구조로 변환 시킴으로써 “단순성”이라는 영국전통을 살려 나갔다.

③ 18세기의 신고전주의 예술은 투명한 단색의 미를 강조하였으며 이로 인한 색상의 억제된 사용도 보다 사실적인 윤곽선 속에서 고대의 심미적인 단순한 순수성이 잘 표현되었다. 당시 영국의 신고전주의를 숭앙하던 재단사들은 광택을 없애고 흐릿하게 마무리되는 무색을 선호하게 되었고 따라서 남성복의 색상도 저명도의 흐릿한 색상으로 되었다. 이는 수수한 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드 자체가 형상화했던 것과 동일한 고전주의적 미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또한 자연에 대한 맹목적인 정보과 시골스포츠에 대한 강렬한 취향은 남성복에 있어 땅, 들판,

숲, 바위, 동물들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 내는 자연색상을 암시하게 되었고 검정, 갈색, 담황색, 백색, 암갈색에 의한 남성복의 상징적인 색상들을 창출해 내었다.

이상 남성수트의 미학적 특성은 신고전주의적인 관점에서 관능성과 단순성, 자연성으로 집약하여 설명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은 근대 예술에서 추구하는 특성들과 부합되어 패션사에서 변함없이 그 형태가 지속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또한 남성 자체의 성적 특징이 강화된 강인성과 관능적인 특성은 여성패션에 끊임없이 차용되어 온 이유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패션사에서 남성복이 오랜 세월 동안 그 형태가 거의 변함없이 지속되고 또한 남성복에 관련한 여성복의 차용 보다는 여성복에 관련한 남성복의 차용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의미를 찾아 보기 위해 남성복의 대명사인 남성 수트를 표본으로 그 미학적 의미를 살펴보는 데 연구목적은 두었으며 이로하여 보다 새로운 관점에서 남성복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A History of Fashion], Metropolitan Museum, 1980.
- Ponelepe Byrde, [The Twentieth Century], Drama Book Publishs, N.Y, 1987.
- Alison Gernsheim, [Victorian & Edwardian Fashion], Dover Publicashion, N.Y, 1981.
- Ann Hollander, [Sex & Suit], Alfred A. Knope, N.Y, 1994, P64, 93, 118, 122~125, 135~137.
- Ann Hollander, [Seeing Through the Cloth], P6, 13
- Elizabeth Wilson, [Adornd in Dreams], Chap 2, Virago Press, 1985, P
- Maggy Pexton Murray, [Changing Styles in

- Fashion], Fairchild, 1990, P69
- Jazuko Koike, [East Meets West-Essey Miyake의 발상과 전개], 平凡社, 1985, P50.
 - 채금석, [현대복식미학], 경춘사, 1995, P98, 175, 300, 118, 122~125, 135~137,
 - Farid Chnoune, [A History of Men's Fashion], Flammarion : Paris, 1993, P9.
 - Jennifer Craik, [The Face of Fashion], Chap 8, 1994, P186.
 - Barbey d'Aurevilly, Jules, [Dandyism (1884)], Douglas Ainslee譯, N.Y, 1988.
 - Cunnington, C. Willett, [Handbook of English Costume in the Nineteenth Century], London, 1959.
 - De Marly, Diana, [Fashion for Men], An Illustrated History, London, 1985.
 - William Hazlitt, [The Dandy School], The Complete Works of William Hazlitt, London. 1824. 11. 18.
 - William Pitt Lennox, [Fashion Then and Now], London, 1878.
 - Stendhal, [Voyages en Italie], Paris, P273~274.

ABSTRACT

Changing Styles & Aesthetic Charactics of Modern Mes's Sutil

This research is to observe background of origination and process of changing style for men's suits and also to observe the root of aesthetics which has made the changing style be maintained for nearly 200 years.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are, _____

1) The revival of the Neo-Classicism beauty in

the 18th century could be regarded as the root of incipient style of the modern men's suits design. And the cutters recreated ancient nude hero which was an object of envy at that time and also reproduced men's suits through modifying the existed suits to make the ancientnude conform with the sewing regulations in order to describe and convey the perfect image of gender.

2) The cutter, who pursued merit of the classicismic aesthetics in the late 18th century, artistically upgraded English rough country coat to keep pace with Nordic coat style of Netherland, Russia, Germany, while in constrast with the coat style mode which was in fashion in France and Italy then. And also they changed the English country coat to a noble natural clothing structure in relation to ancient sculpture to keep the English tradition.

3) Im the 18th century, Neo-Classicism art emphasized transparent and monochromatic beauty and thus color was limitedly used. In the use of the limited color, however, ancient aesthetical simple purity was well described within the more realistic outline. In those days, the cutter who admired the English Neo-Classicism removed color-luster and preferred colorless finished dimly and transparently.

And thus, color of the men's suits become to be also dim colored in los brightness. This means that it did not express pure beauty but brought such effect of the Classicism beauty that the nude itself was figured out.